

전해질 원료 제조공장 신설 위해 '맞손'

정석케미칼-전북도-완주군, 525억원 투자협약 체결... 완주테크노밸리2산단 일자리 100개 창출·첨단 소재 생산 거점 조성 등 효과

완주의 향토 기업인 (주)정석케미칼이 차세대 이차전지 전해질 원료 생산을 위한 공장을 완주에 투자한다. 이에 1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주)정석케미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날 (주)정석케미칼과 전북도,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주)는 완주에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정석케미칼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단지 1만여평에 525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이차전지 전해질 원료인 LIS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전라북도와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주)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주)정석케미칼은 당초 도로 관련 제



품을 주로 생산하였으나 최근 첨단소재인 고체 전해질 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0년 대구에서 창업하였으나 1998년 완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키워온 향토기업인 (주)정석케미칼(주)는 최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체 전해질 원료인 LIS 관련 특허를 받고 국산화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주)정석케미칼에서 생산하는 리튬염(LIS)은 고순도(99.99%)를 자랑하고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온전도도가 높아(10-3S/cm, 전해질 제조후 10-2S/cm)배터리 제조 업체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완주에 추가 투자하는 공장에 대규모 LIS 생산시설을 구축해 양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자동차 이차전지 등 도내 연관계업과의 동반성장이 예상되며, LIS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이온도미 관련 생산 계획도 가지고 있어 수소산업과의 연계 발전도 기대된다.

향후 (주)정석케미칼은 1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고 이번 투자로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의 분양률도 제고되어 완주 경제 불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기자



군산시,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 나서

대규모 국제행사, 군산 새만금컨퍼런스 15~17일 아·태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 개최

군산시가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에 새롭게 나서고 있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2 GSTC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는 지난 9일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이 GSTC(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한 달여만에 개최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로 MOU 체결 기관간의 속도감 있는 협의를 통해 국제행사를 유치해낸 본격적인 행보로 지역 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가 민선8기에 들어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관광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황에서, 이달 16일부터 개최되는 '군산 국제관광페스티벌'을 앞두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통해 지역 축제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는 프랑스·체코·포르투갈·이집트·탄자니아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와 국제기구, 주한외국 대사관,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와 자연에 대한 관광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코로너H9 이후 지속가능관광의 발전과 MICE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포럼이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GSTC 루이지 카브라니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개막행사와 은파호수공원에서 군산 수제맥주 홍보를 결연한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드론 라이트쇼' 특별공연, 새만금과 싱가포르 센토사 사테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특별 프로그램, MZ세대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도, 팀별 제안 우수 아이디어... 도정 혁신 자산으로 실행 '박차'

장애심판 청구권 자문절차 도입 등 15개 최종 선정 발표... 김관영 도지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반영·팀장 인센티브 포상 지시

전북도는 14일 열린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15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 심사는 지난 7~8월에 개최된 실국별 도지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팀별 타·시도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출된 253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1차로 14명 실국장이 소관 실국의 우수아이디어를 3개씩 추천하여 총 42개 평가대상을 확정했다.

2차 심사는 전체 실국장이 참석할 자리에서 팀장이 직접 발표하고, 소관 실국 추천 아이디어 3개를 제외한 39개 아이디어에 대하여 심사기준표를 따라 평가하고, 실국장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선정했다.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심사에는 총 42명의 팀장이 벤치마킹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15명이 참석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절반 이상인 28명의 팀장이 PPT를 직접 제작해 발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평가시에는 발표된 아이디어가 어느것 하나



버릴것이 없이 모두 우수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발표 심사를 통해 팀장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가 보완·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이제는 진짜 도정 혁신 자산으로서 실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 및 전라북도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제안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심판 청구권 자문절차 도입(법무행정과 행정심판팀장)은 우리도 행정심판 청구권 권익구제 추진을 위

해 필요한 절차로, 장애청구사건 자문절차 도입으로 인용을 제고를 위해 의사회, 병원 등과 간담회 및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의사회·병원에 자료 송부 및 자문절차를 구하는 아이디어다.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 정책소풍(Saw-風)정책기획관실 정책관리팀장)은 일반적인 현장행정이 아닌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생방향 소통 창구 개설로 시군이 주제를 선정하고, 도지사가 지역주민과 편안 한 장소에서 정책대화를 통한 '정책보물 찾기 프로젝트'다.

△새만금 인규입방안(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은 경제적·지

위적으로 성공한 재외 한국인들이 다시 귀환?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을 살린 마을(재외동포타운)을 조성하여 새만금 수변도시 등 차별화된 인규입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회재난과 사회재난예방팀장)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방세계 지원(세정과 세정팀장) △농산물 유통 데이터 기업활동 촉진(농산유통과)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한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팀별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최종 선정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금명간 도지사 격려 오찬 간담을 준비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 직무성과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아이디어 실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반영하겠다"라며 "아이디어 축적·보완·실행·홍보·평가 등 전 과정을 팔로업 하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여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정 혁신의 자산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2022 전북도 이색 회의장소 7곳 선정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더메이호텔·완주 산속등대 등

전북도는 전북민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마이스 행사 장소를 발굴·육성해 마이스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고자 2022년 전라북도 유니크메뉴'를 7개소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니크메뉴는 △전주 더메이호텔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완주산속등대 △아쿠아티파크 아미촌 등 7개소다.

유니크메뉴(이색회의장소)는 개최지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공간으로서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지칭하며, 마이스행사 주최자들이 행사 성격에 따라 다양한 특색의 유니크메뉴를 활용하면서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서의 새로운 트렌드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도는 전라북도민의 특색있는 유니크메뉴 발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서면검토 및 현지실사(8월), 선정심사위원회 심사(9.7.)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유니크메뉴에는 홍보영상 제작(3D VR맵), 전라북도 유니크메뉴 현판 수여, 국내 마이스 박람회 참가, 마이스 관계자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마케팅, 지역 컨벤션 유치 활동 추진 등 지원 정책 강화로 유니크메뉴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유니크메뉴 활성화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14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지정 가능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42-1/ 송풍리 1658-1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42-1
6.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공고인): (주)제이비피씨(010-7767-6531)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

2022년 9월 16일

공고인: (주)제이비피씨

(전북 진안군 용담면 안용로 119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